‘내수 비상’ 할인·서비스 경쟁 불붙다

에쿠스·오피러스 등 대형차 최대 1천만원까지 파격 할인

수입차도 무상 점검·등록세 지원 등 ‘겨울 마케팅’ 돌입

현대차 ‘에쿠스’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기아차 ‘오피러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 할인 등을 통한 ‘고객 잡기’에 나섰다. 특히 현대차 등 국산차업계가 대형차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할인 공세를 펴자 수입차업계는 일찌감치 ‘겨울 마케팅’에 들어가는 등 반격 채비를 갖췄다.

◇국산차업계 파격 할인=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1월 한 달간 ‘에쿠스’의 차값을 최대 1천만원까지 할인해준다.

최근 ‘에쿠스’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차값 5%를 기본 할인하는 한편, 지난 8월 이전분 재고에 대해선 500만원을 추가로 깎아준다.

이에 따라 차값이 9천500만원에 달하는 ‘에쿠스 VL 450 리무진’의 경우 할인폭이 1천만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또 대형차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할인조건을 내걸었다. 올해 초 출시한 ‘제네시스’는 재고기간에 따른 할인폭이 200만~400만원에 이른다.

신차인 ‘제네시스 쿠페’도 지난 9월 출고물량에 대해 100만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이달부터 두 달간 SUV 고객에게 코오롱스포츠 구매 할인권과 사은품을 제공하는 제휴 마케팅을 실시한다. 또 코오롱스포츠 제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현대차 전 차종을 구매할 때 차값 1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대형차인 ‘오피러스’의 차값을 200만원 할인해주며, ‘로체 어드밴스’는 차값 10% 할인에다 200만원을 추가로 내렸다. 신차인 ‘포르테’와 ‘쏘울’도 각각 25만원 할인된다.

GM대우는 일시불로 차값을 낼 경우 ‘윈스톰’ 2009년형은 유류비 160만원을, ‘토스카 프리미엄6’는 1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쌍용차는 2009년형 ‘Super 렉스턴’, ‘카이런’ 등에 대해 옵션을 내걸었다. 우선 업계 최저 이자율인 3.9%로 36개월을 할부해주는 상품과 선수금 30%를 낼 때 무이자로 36개월간 할부로 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렉스턴’ 최고급형을 250만~400만원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르노삼성차는 ‘SM3’, ‘SM5’, ‘SM7’ 등의 구매고객에게 유류비 70만원을 지원하며, ‘SM7’의 경우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추가 제공된다. 또 르노삼성차 재구매 고객에게는 차종에 따라 10~30만원을 지원한다.

◇수입차업계 무상점검 등 서비스로 ‘맞불’= 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28일까지 자사의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무상 점검 서비스를 벌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폭스바겐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냉각수, 타이어, 제동장치 등에 대한 점검 서비스가 이뤄진다. 또 2002~2005년식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부품 및 공임을 10%, 2001년식 이전 차 소유자들은 15%를 각각 할인해준다.

GM코리아도 겨울철을 맞아 1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정서비스센터에서 캐딜락과 사브 고객을 대상으로 ‘동계 서비스 클리닉’을 실시한다.

GM은 이 기간에 20여개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비롯, 점검항목에 대한 부품 및 액세서리 20% 할인, 내비게이션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BMW코리아는 7일까지 전국 BMW 서비스센터에서 ‘5시리즈’ 및 ‘X5’ 모델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캠페인’을 벌였다.

행사 기간 BMW는 자사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진단장비를 통한 무상점검을 실시했으며, 유상 수리도 20%의 할인 혜택을 줬다.

아우디코리아도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차량을 등록한 아우디 고객을 대상으로 ‘아우디 라이프타임 서비스 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에서는 아우디 차량 보유자에게 무상 점검, 수리 부품 및 액세서리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마이바흐’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서울 등 3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독일에서 ‘마이바흐’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술자가 직접 방한해 고객에게 일대일 맞춤형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격할인에 나선 수입차 브랜드들도 있다. 크라이슬러는 지난 3일 ‘세브링 컨버터블’의 2009년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차값을 110만원 내렸다.

렉서스도 최근 ‘LS460 AWD(4륜 구동)’ 출시를 기념해 차값을 기존 모델보다 1천만원 낮췄다.

이밖에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도 등록세 지원, 저금리 등의 금융 프로모션을 통해 가격 할인에 나서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산차 할인조건 (11월)

현대차
- -에쿠스:차값 5%+추가 100만원~500만원 할인 (최대 1천만원)
- -베라크루즈:300만~550만원 할인
- -제네시스:200만원~400만원 할인
- -그랜저:150만원~270만원 할인
- -쏘나타:130만~230만원 할인

기아차
- -오피러스:200만원 할인
- -스포티지 가솔린:100만원 할인
- -로체어드밴스(구형):차값 10%+추가 200만원 할인

GM대우
- -윈스톰 2009년형:160만원 유류비 지원
- -토스카:130만원 유류비 지원

르노삼성
- -SM5:70만원 할인+12개월 무이자 할부
- -QM5:전자동 선루프(86만~91만원)무상 장착

쌍용차
- -렉스턴·카이런:선 30% 납입 때 36개월 무이자 할부